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World Bamboo Fair Damyang KOREA 2015
http://www.damyangbamboo2015.kr
대숲에서 찾은 녹색미래
담양에서 45일간의 녹색 향연이 펼쳐집니다.
2015.9.17~10.31 죽녹원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95호 1판 (음력 9월 1일)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88올림픽 고속도로(전남 담양~경북 고령·총 연장 142.8km) 왕복 4차로 확장 공사가 9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오는 11월말 전 구간이 조기 개통된다. 사진은 포장공사가 마무리 된 전남 담양~전북 순창 구간.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뻥~뚫린 88고속도로 영호남의 벽도 뚫린다

전 구간 4차로 확장 11월 개통…'달빛고속도로' 개명 추진

교통사고율이 높아 '죽음의 도로'로 불렸던 88올림픽 고속도로(전남 담양~경북 고령·총 연장 142.8km)가 왕복 4차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말 조기 개통된다. 〈관련기사 2면〉

8일 국토교통부는 애초 올 연말 개통 예정이었던 88올림픽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조기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확장 도로는 기존 폭 11.2m(2차로)에서 23.4m(4차로)로 늘어나게 된다.

14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 확장 공사는 구간별로 91.6%~96.7%의 공정률을 보이며 전체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일은 애초 12월말로 예정됐지만, 교통안전 확보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일보다 약 1개월 앞당겨 11월말께 전 구간을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8고속도로 확장·개통에 따라 광주~대구 간 운행시간은 기존 132분에서 102분으로 30분이 단축되고, 운행거리도 182km에서 172km로 10km가 줄게 된다. 총 사업비 2조1023억원이 투입된 이 확장사업은 지난 2008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찔끔공사'로 진행돼 7년 만에 완공하게 됐다.

특히 올 들어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88올림픽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힘을 모으고, 올해 15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1984년 개통 이후 31년 만에 명실상부한 '고속도로'로 태어나게 됐다.

호남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였던 88고속도로가 확장·개통됨에 따라 동서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쌓였던 지역감정의 '벽'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빛고을)와 대구(달구벌)는 '달빛동맹'을 통해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미래 먹거리를 찾는 사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대구시 등 영호남 지자체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역사적 완전 개통'을 앞두고 도로 명칭을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달빛 고속도로'로 바꾸기로 협의하고, 명칭 개칭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88고속도로의 확장·개통에 따라 영호남의 동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88올림픽고속도로는 5공화국 시절인 1984년 영호남 화합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개통됐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다 보니 도로 너비가 편도 1차로로 좁고, 중앙분리대가 없으며, 급경사 구간이 많아 잦은 사망 사고로 인해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써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교육부, 행정예고 … 2017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 적용

학계·시민사회 강력 반발 … 野, 황우여 장관 해임안 제출

정부가 학계·교육 현장, 시민단체 등 각계 반대에도 불구, 결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화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으며 극심한 국론 분열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촉발된 여·야 정치권, 진보·보수 양측의 '역사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는 12일 오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으로, 구분안이 확정되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난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역사 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국정화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명명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 위탁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11월 중순까지 구성한 뒤 내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친다는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당장, 정치권, 역사학계, 교육현장, 시민사회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구세력'의 친일·독재 미화라고 주장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으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역사 쿠데타"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일선 역사교사들도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정부의 국정화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인정 교과서 발행"

"국정화 맞서 선택교과 개설"
장만채 도교육감 "심히 유감"
광주·전남 교육계 국정화 반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 광주·전남 교육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화 발상은 일본의 군국주의나 독일의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발상의 토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류의 비극을 잉태하는 몰역사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 방침과 관련, "25년 역사 교육을 담당했던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 "세계 지성에 역행하는 발상",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위" 등이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광주 교육정책의 수장으로 대응 입장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며 "(국정교과서에 대응하는)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해당 교과를 공부할 수 있는 선택교과를 개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뒤 연구팀을 꾸리고 가칭 '역사철학', '역사와 인문학' 등의 명칭으로 선택 교과를 개설하는 등 국정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교육감, 교육장, 저작자(발행자) 등이 각각 저작·개발 및 출원할 수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지난달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화 강행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반대 광주 역사교사들도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 제도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내용을 독점하고 단일화해 아이들을 획일화·우민화 하는 처사"라며 "반역사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역사 쿠데타, 역사 조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놓고 13일부터 촛불 시위 등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광주전남 문화예술인·시민단체·전문가·지식인'단체도 14일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난 역사 교사들 광주 초·중·고 역사교사들이 1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찾은 홍범도 장군 외손녀 ▶7면
블루오션 다도해 - 고흥 ▶18면